

등록번호	이리초등학교-
등록일자	2019. 11. 13.
결재일자	2019. 11. 13.
공개여부	공개

위원장	학교장
이덕순	강창경

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130회 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19. 11. 13.(수) 11:00~12:0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이덕순, 안미란, 노금자 출석교직원: 강창경, 오미란, 정진교, 홍희운
회의 진행 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위원장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전심의 7. 폐회	
상정안건 1. 2020. 3. 1.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안) 2. 기타제안 사항	
심의결과 1. 2020. 3. 1.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안) 가. 발언내용 · 학교장(강창경): 2020. 3. 1.자 교장 결원(정년퇴직)인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학교는 일반학교로 초빙형에 해당되며, 교직원과 학부모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심의 부탁함.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은 교감이 설명할 것임. · 위원(오미란): 교장공모제로 오는 경우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 경영이나 교육과정이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적 교육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업무량이 늘어 학생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음. · 위원장(이덕순): 교직원과 학부모의 설문결과가 다른데 반영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위원(오미란): 반영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에 참고하면 됨.
- 위원(안미란):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교장의 영향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 듯하여 기존 임명제를 찬성함.
- 위원장(이덕순): 설문 시에 교장공모제를 찬성하였으나 설명을 들어보니 교장 공모제 학교의 밖으로 드러난 장점 한두가지만으로 평가를 했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단점도 분명히 있음을 인지했다.
- 위원(홍희운): 우리가 교장선생님을 “좋다” 라고 평가할 때는 교사에게 자율권을 많이 줬을 때였다. 교장공모제를 하면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노금자): 교장공모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교사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 위원(홍희운):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예산이 지금 되는가?
- 학교장(강창경): 그런 예산은 없음.
- 위원(정진교): 교장공모제 학교에 두 번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세우는 실적이나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내부적으로는 학생에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 위원장(이덕순): 결론을 내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할지? 거수로 할지를 정함.
- 위원들: 모두 거수에 찬성하여 거수를 실시 함.
- 위원장(이덕순): 거수 결과 교장공모제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 찬성.

나. 결정사항: 2020. 3. 1.자 교장공모제는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